

동해시, 겨울철 다소비

식품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동해시는 계절별로 다소비 배달음식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분기에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찜, 탕, 찌개류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오는 11월 12일(수)부터 11월 14일(금)까지 3일간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 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는 일반음식점을 중심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조리시설 위생관리 실태 △소비기한 경과 식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여부 △개인위생관리 이행 여부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제도를 안내하는 등 자율적인 위생관리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지용만 예방관리과장은 “겨울철 배달음식의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위생적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동남아 국가에 집중 홍보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인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눈과 얼음이 없는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에서 본격적인 홍보 마케팅에 돌입했다.

최문순 군수를 비롯해 군청 관광정책과 글로벌 마케팅팀은 내년 화천산천어축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해 지난 9일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베트남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홍콩, 타이완까지 3개국을 방문해 현지 대형 여행사를 방문한다.

첫 번째 방문지인 베트남은 화천군이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새로운 관광시장 중 하나다. 지난해부터 베트남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화천군은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과 젊은 소비층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하노이와 호치민, 다낭 등 관광도시 여행사 대상 시장 개척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최문순 군수는 비엠티레블 등 대형 여행사 대표단을 만나 산천어축제 홍보영상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모객과 협력을 당부했다.

화천군 방문단은 12일 홍콩으로 이동해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방문에 매이저 여행사와의 만남을 이어간다.

13일부터는 타이완 타이베이시를 찾아 오랜 기간 화천산천어축제에 관광객을 모객해 보내고 있는 여행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화천군은 겨울이 없는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에 겨울축제 상품을 판매한다는 역발상 전략을 앞세워 매년 수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2025 강원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간담회」 개최

방산 중소·벤처기업과의 현장 소통… 국방경제 추진전략 및 지원사업 설명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진출 확대와 지원사업 정보 공유를 위해 「2025 강원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1월 11일(화) 강원 연구원에서 김만호 경제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민군협력진흥원(국방과학 연구소 산하), 강원국방벤처센터(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산하) 관계자와 도내 협약기업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의 국방경제 추진전략, △국방부 민·군 기술협력 사

업, △국방 보안체계 등을 설명하고, 협약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강원국방벤처센터는 2024년 12월 개소 이후 지금까지 44개 협약기업을 발굴, 기술·경영 컨설팅, 시제품 제작, 국방 수요처 연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청 주관 국방벤처 지원사업에 강원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4개 사가 선정되도록 지원하여, 2년간 총 12억 원 규모의 방산 R&D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는 도내 기업의 방위산업 사업화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도는 ‘강한 국방, 강한 경제, 강원특별자치도’를 비전으로 국방산업을 강원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국방산업 전담조직인 ‘국방경제추진단’을 출범하여 첨단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 인프라 유치 등 국방경제 기반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는 강원국방벤처센터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기업을 늘리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방위사업청 공모)에도 도전에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 국방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새 정부가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R&D 확대를 통해 ‘K-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국방벤처센터 지원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 첨단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강릉시, 가을철 산불예방·제설대응 총력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11일(화) 시청 15층 회의실에서 2025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동절기 제설대책 읍면동장 회의를 열고 대응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회의에서는 가을철 산불예방과 동절기 도로제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읍면동별 대응 상황 점검 및 읍면동장 의견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김홍규 시장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각 읍면동별 ▲산불방지 인력 출동대세 확립 ▲영농부산물 등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화목보일러 점검 및 쓰레기소각행위 단속 등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동절기 기후변화에 따른 철저한 제설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 제설 취약구간 일제 조사 ▲읍면동별 제설제 사전배부 ▲제설장비 점검 및 임차장비 예행 연습 실시 등 제설대책 수립현황을 살피고, 읍면동별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한 건의 산불 발생 없었던 올해 봄철 산불방지기간에 이어 가을철에도 산불 발생 제로를 위해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제설의 달인’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제설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과 관광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평창군,도시재생사업 '대화 과방마켓' 개최

평창군 대화면 도시재생사업으로 마련된 '대화과방마켓'이 오는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대화 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대화면 고유의 로컬 문화인 '대화과방'을 모티브로 치유와 힐링을 주제로 한 소규모 지역 미식 행사로 진행된다.

'대화과방'은 예로부터 대화면에서 경조사 시 10여 가지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 손님을 대접하던 대화면의 풍습으로, 이웃 간 정과 나눔을 상징하는 지역의 전통문화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지역적 정체성을 살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콘셉트인 치유와 힐링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로컬 행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진행된 '치유 미식 학교' 결과물인 치유 먹거리를 비롯해 지역 농가 및 관내 우수기업의 상품이 판매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내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마음 치유 힐링 체험도 함께 진행되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힐링의 장이 될 전망이다.

공식 개회식은 11월 14일 오전 11시 30분, 행사장 내 '별다방' 앞 주무대에서 열리며, 도시재생 관계자와 주민이 참석해 개막 선언과 도시재생사업 경과 소개가 진행된다.

양일간 오후 6시 30분에는 전통주 무료 시음 행사가 열리고, 15일 오전 11시에는 '바로 먹는 고추장 만들기' 전통 발효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해당 부스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 '전통 발효 프로그램 감사 육성 교육' 수료생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행사장에서는 무대 공연과 경품 추첨 이벤트가 진행되며, 10인 이상 단체 신청자 대상 무료 셔틀버스, 현장 통합 부스에서 운영하는 무료 택시 서비스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교통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첫날인 14일은 대화 오일장과 연계해 시장 내에서 함께 운영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대화과방 마켓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변화할 대화면의 시작점. 이번 행사를 통해 대화면의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외부 방문객 유입을 확대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미식 콘텐츠 발굴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화면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힐링 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춘천시 2025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춘천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로를 넓히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지역 브랜드 상품을 알리는 상생의 장이 마련된다.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오는 15~16일, 22~23일 이틀씩 2주간 '2025 춘천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를 연다.

올해는 지역의 청년소상공인의 판매수익 증대와 홍보에 주력해 △청년소상공인 직거래 부스 △시민 참여형 이벤트 △공공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한다. 또 특히 민관협력 배달앱인 '뽕겨요' 홍보도 함께 추진해 지

역 내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춘천시는 지난해부터 참여하고 있다. 작년에는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스페셜라이즈드 행사와 연계 운영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작년보다 한층 규모가 커진 직거래장터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기대한다”며 “시민이 즐기고 소상공인이 웃는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다양한 건의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 이어져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장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상임대표 유효재)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

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큰 관심을 끈 안건은 기업도시 통합 환경 개선이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와 승하차 구역 확충 등 학생 통학 안전과 관련된

주제는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조정 건의도 제기됐다. 시는 원주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해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자녀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 방향을 탐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지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원주시는 지역 내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꿈이룸 바우처를 통해 예체능 분야 진로를 희망하게 된 학생들에게 졸업 후에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학부모들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